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무용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18. 4. 4(수) 14:00~18:0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2차 인터뷰심의) 2018. 4. 6(금) 10:00~15:0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용, 김윤진, 장인주, 조성주

<서류심의>

이전 안무 창작 작업을 바탕으로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킬 가능성에 대한 연구계획을 검토했다. 연구문제와 주제의 구체성, 창작에 접근하는 젊은 안무가의 고유한 시각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을 검토하였고 예술가로서의 잠재적인 역량과 개방성에 무게를 두고 심의했다.

창의성이 돋보이는 연구주제, 선행연구와 창작동기의 설득력 등을 갖춘 계획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기대를 가졌다. 지원서 상에 드러나는 구체적이지 못한 연구방법과 창작계획이 미흡했던 계획서가 다수 발견된 점이 상당히 아쉬웠다. 그 결과 우선순위로 총 15명을 선정했다.

<인터뷰심의>

총 33명 지원자 중 심의부적격자 1명을 제외한 32명을 대상으로 양일간에 걸쳐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에 있어서 4명의 심의위원의 기준이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창작에 접근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의지와 연구과제에 대한 진지함, 한정된 기간동안 효과적인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만 35세 이하의 젊은 창작자로서의 신선하면서도 뚜렷한 계획이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준이 되었으며, 피상적인 계획은 부정적 평가의 근거가 되었다.

독창적인 창작방법을 찾기 위해서 소재와 주제선정이 다소 미흡할지라도 추후 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과 의견교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역량 또한 평가에 크게 적용했다.

전반적으로 지원신청서 상에서의 계획안이 개별적인 인식의 수준과 사전연구의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무용

정도와 진도가 크게 상이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당해 지원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수행능력에 주안점을 두어 가산점을 주었다.

최종적으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사업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학구적인 성향과 학습과 연구에 대한 의지가 투철한, 탐구적인 예술가로서의 잠재적 역량과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 높은 점수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취지와 교육과정 등을 통해 발전가능성과 결과물 도출을 위한 노력 가능성을 평가해 총 8명을 선발했다. 결과물 도출을 위한 지원이 아닌, 사람을 위한 투자, 안무가 육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되길 기대하며 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무용분야 선발 심의위원 일동